

「학교, 2030 교육을 품다」  
**한국교육시설학회 제9회 교육시설 디자인 공모전 심사평 총평**  
 The Whole Process of the 9rd Architecture Competition of Educational Facilities



임 종 업 / 인하대 교수  
 Lim, Jongyup/ Professor, INHA University  
 teatro@inha.ac.kr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의 자료에 의하면 미래사회의 변화로 가르치거나 배우는 교육공간이 추구해야 할 방향은 다음과 같이 수정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첫째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공간, 지속가능한 건축, 다양성을 동반한 교육 공간, 무장애의 안전한 공간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노령화에 대비하며 필요한 시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OECD에서도 미래학교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이상적인 교육공간으로 제시한 것과 연계되어 제시되는 것으로 먼저 관료체제와 시장화를 극복하고, 교육공간이 사회의 구심점이자 중점기관으로 자리하기 위한 도시 네트워크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금년 한국 교육시설학회의 디자인 공모전은 “학교, 2030 교육을 품다”를 지향하고 있으며, 현재의 학교공간과 미래의 교육을 위한 제안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것은 교육시설이 지역의 중심이 되면서 미래학교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도시재생 및 활성화의 주체로 이후의 모든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의 중심을 이루는 것이다.

공모전의 디자인 주제는 “현재의 학교공간과 미래의 교육을 위한 제안”으로 2019 현재의 교육방식이 10년 전의 그것과 다르듯, 2030년의 교육은 또 다른 운영방식과 공간의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건축물로서의 교육시설은 그 물리적인 수명이 비-물리적인 교육제도의 수명보다 훨씬 더 길기 때문에, 때때로 이루어지는 실험적 교육방식의 시도가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교육공간이라는 건축은 시대적으로 매우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기도 한 것이다. 교육환경의 변화는 교육의 효과를 지속시킬 수 있는 필수조건이어야 하고, 교육공간은 사회의 변화무쌍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 과연 미래의 교육은 어떤 형태로 어떤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단순히 지식전달의 교육을 넘어 창의성 발달을 위한 공간이어야 하고, 학생은 물론 지역민들을 위한 교육을 바탕으로 교육 시설은 사회적 네트워크의 중심이어야 하고, 지속가능하고 탄력적인 교육환경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있는 것이다.

학회의 제9회 공모전은 기존건물과 미래교육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기존 학교건물을 이용하여 미래 교육을 품을 수 있는 제안을 기대하며 세 가지 소주제를 제시한다.

첫째는 2030 learning in 2000 school로 기존 학교 공간을 이용하여 미래 교육에 맞는 환경으로 탈바꿈하기. 기존 학교공간의 계획적 특성과 교육연계성을 이해하고, 이를 창의적으로 이용하여 미래형 교육에 걸맞은 환경 제안과 둘째는 temporary school로는 내진구조보강, 공간확장, 공간기능전환 등 학교시설의 부분 혹은 전체 리모델링 공사 기간 동안 질적인 교육의 지속성을 위한 건축적인 방안 제시. 학교부지 내 컨테이너 공간 사용에서부터 지역사회의 자투리 공간 활용까지, 공간과 제도의 복합적인 제안을. 그리고 세 째는 school network로 획일화된 교육공간이 아닌, 지역사회의 특성을 지닌, 지역의 거점으로 교육공간의 의미 파악. 지역으로 확장되는 교육의 가능성, 교육공간의 네트워크를 이용한 효율적 이용 등 교육공간의 불균형을 상쇄할 수 있는 공간적 대안과 사회적 제안을 디자인하도록 이 주어진 것이다.

공모전의 심사는 합리적이고도 엄격하게 이루어졌다. 교육시설의 건축분야에서 이미 많은 노하우를 축적하신 두

분의 실무 건축가들과 두 분의 교육계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로 진행되었다. 이번 공모전의 심사는 평가와 선정이기도 하였지만, 미래의 교육환경과 커뮤니티의 중심 시설이 되어야 하는 교육 공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것이다.

심사의 관점은 주제에 대한 참가자들의 자유로운 아이디어와 창의적이고 완성도 있는 대안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기초적으로는 교육공간의 원칙과 기능성에 대한 분석과 연구가 전체 되어야 하고, 실무적인 측면에서도 현실성을 바탕으로 대안의 적용 및 운영 가능성의 측면에서도 평가의 기준이 설정되었다. 또한 제출물에서 전달력을 바탕으로 패널의 구성력과 가독력, 표현력에 대해 심사위원 공통의 관점이 평가의 기초가 되었다.

대상에 선정된 작품 “우리들이 만들어가는 학교”는 교육공간이 특정 건축가의 역할만이 아니라 참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의 전환을 주제로 하고 있다. 내용적으로는 본 공모전의 주제 및 성격에 핵심 부분이 공유되어있고 그에 부합하는 적절하고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평가 될 수 있다. 세부 내용으로는 교육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태적 문제점을 공간적으로 예방하고, 건축물이 하나의 치유 장치로 배치 및 규모에 있어서 새로운 대안이라고 평가된다. 디자인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교사동의 저층화와 매스 및 공간의 분절이 가장 중요하게 드러나고 선생님들의 공간은 각 교실동과의 버퍼 존을 이루면서 중재되고 연결하는 역할로 작용되도록 하였으며, 교실 벽면을 디자인함에 있어서도 자연감과 각각의 동선이 만들어내는 다양성을 활용하였으며, 인접한 학교주변의 시설과의 연계성도 고려하였다는 점이 긍정적인 아이디어로 이 작업이 매우 참신하고 섬세하면서도 구체적인 적용 대안들로 이루어져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상의 공간적인 아이디어들을 통해 미래의 교육공간은 다원화와 개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고 개인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집단주의적 사고를 형성하며, 현재 학생들에게 나타나는 공감능력의 저하를 다시 높일 수 있는 방향이 제시된 것이다. 더하여 수업 프로그램과 운영까지 다루었다는 점은 이 작품이 대상으로 선정될 충분한 가치를 나타내고 있음이다. 담백한 표현력으로 과도하고 현란한 시각적 혼돈을 최대한 자제하고, 마치 하나의 논문이 전개되듯이 충실하고 정확한 다이어그램과 내용은 설득력있는 패널로 마무리 되어있다.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작업은 Promenade in Urban Hill은 수원에 방치되어있는 서울대 농과대학의 기능을 회복

하고 기존의 도시 조직에 대입하여 교육공간이 도시공간에서 재생의 장치로 활용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농과대학의 특성상 대상지의 영역은 매우 크고 넓기에 이런 시설이 방치되어있음은 지역의 커뮤니티에도 부정적으로 작용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문제점이 비교적 명료하고 이에 대한 제시로 12가지의 도시구성요소를 프로그램 요소로 전환하며 기존공간의 재구성을 시도한 것이다. 자연과 연계된 물리적인 요소들로 각각의 것은 상위레벨로 상승시키며 새로운 동선을 만들고 교육 상업 문화의 요소들은 하위 레벨에 두면서 분리된 동선간의 상호작용을 최대화 시키려는 공간적 장치였다. 이를 통해 기존 도시조직이 지니고 있던 소통의 단절을 최소화하고 교육시설의 기본 기능을 회복시킴과 동시에 새로운 활성화의 공간으로 성장하는 공간의 제시이기도 한 것이다. 방법론적으로는 기존공간의 도로의 축선을 연결하고 전제된 12가지의 요소(정원, 농장, 상업 공간, 도로, 산책로, 교육시설, 광장, 휴게 공간, 문화 공간, 체육 공간, 어린이 공간, 전담대)를 재배치하여 기능을 재생하는 방식이다. 구릉을 이용한 경사로 활용, 수직형 농장의 배치 그리고 동선의 구분으로 다양화의 유도 등은 주변으로의 연결되는 기존 도시조직의 활용 가능성으로 물리적 시각적 기능적 균형이 비교적 잘 이루어진 작업이다. 이를 통해 교육공간이 기존 도시조직에서 새로운 연결고리로 작동하며 활성화의 중심이 될 가능성을 탐색한다. 단 이 작업은 동일 주제와 대상지로 기존의 타 공모전의 주제와 동일내지, 유사하여 평가대상으로 적부를 놓고 논의가 있을 수 있었으나, 평가 당시 확인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어 중복의 가능성을 보류하고, 순수한 내용으로만 본 공모전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다소 과도한 표현력들이 실질적인 내용 전달 측면에서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었으나, 타 공모전의 취지와 별도로 현 공모전에서의 목적과 방향에서 벗어나 있지 않기에 제출물의 완성도와 내용에서 충분한 검증과 평가되었다.

#### 우수상 1.

먼저 “아이를 키우는 잔다리 마을학교”는 최우수상에 못지않은 작품으로, 현재 교육공간의 문제점을 정확히 분석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학생 수의 감소와 기존 학습공간이 과도하게 전체주의적 성격의 공간으로 이루어져있어 객관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하드웨어를 수정하고자하였으며 넓은 운동장의 운영과 성격에 대하여서도 새롭게 질문하고 있는 수작이다. 대상지인 흥대 앞은 더구나 높은 지

가로 그 밀도로 인한 공동체의 소통성과 운영에서의 효율성이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제시된 대안은 마을이 스스로 지켜나가는 학교를 구상한다. 기존의 단조롭고 획일적인 교육시설을 해체하여 개별적인 매스로 제시된 공간들은 단계적인 공동체의 공간을 활용하였으며 그 최종적인 목적은 소통에 있는 것이다. 전략적인 방식에서도 교실공간의 해체는 커뮤니티 공간의 활성화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운동장의 활용성에 대하여서도 이용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며 단일한 하나의 운동장에서 동시간대에 다양한 활동을 유발시키는 공간으로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이와같은 공간의 분절들은 함께하는 도서관등으로 접근성과 이용률 모두에서 장점을 찾을 수 있는 대안이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도 가벽을 통한 외부인과의 소통을, 그리고 산책을 동반하여 마을과 지역에서 분리되어있는 학교시설을 다시 소통과 커뮤니티의 공간으로 바뀌길 원하는 대안이었다. 각각의 공간들은 상징수를 통한 중정을 비롯하여 다양한 체험공간과 연습실 등으로 운영되며 일반교실 외에도 다양한 실습실 등이 배치된다. 식당 역시 지역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한 공간을 전환 제시되면서 지역성이기도한 홍대 앞의 문화적 요소와의 연계 그리고 또 다른 문화 플랫폼으로의 가능성을 제시해준 대안이다. 현황에 대한 해석 측면에서도 성실하게 대지 분석이 이루어져있어 도로의 폭과 레벨의 특성 등 모든 부분에서 성실하고 충실한 대안이었으며 표현력에서도 단정하고 순수한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수작이었으며 시퀀스 컷부터 세부적인 표현에서 정성을 들인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우수상 2.**

교육공간이 지역성의 회복을 위해 취하여야 할 자세를 두고 질문한 것이다. 커뮤니티와 소통을 위한 건축적 방식에서 ‘사이’라는 물리적, 시간적, 공간적 제시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풀어가고 있는 대안이다. 사이가 우리의 잠재된 의식으로부터 출발하여 초월적인 공간으로까지 이어짐을 전제로 ‘공간’을 개별적이고 독자적인 개념으로부터 ‘장소’라고 하는 통합적이고 연계적인 의미의 개념으로 성장시킨다. 서로 다르게 존재하는 공간들의 상이성으로부터 공통된 공간의 성격과 위상을 찾아내고 그것들의 연계성을 통해 새로운 하나의 총체적인 영역으로의 공간, 장소를 형성시키기 위함이다. 그 출발에서 개념은 다소 철학적이기도 하나 그 접근방식이 매우 지적이라 볼 수 있다. 학습자들은 이런 공간의 역할 과 힘을 체험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된다. 이는 정서의 발달은 물론이고 신체가 성장함과 동시에 인간사이의 관계성을 위한 중요한 공간적 제시였다. 출입구의 강약을 조절하고 육교라는 다소 상투적인 물리적 공간의 연결이나 이것을 통해 너와 나의 마을공간이 하나이자 다양성으로 만들어 이런 환경에서 자라는 학생들은 자연스러운 융합의 과정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자연스러운 사회적 관계를 배우고 지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만들어준다. 이런 논리를 전제하면 놀이공간과 교육공간은 분리될 수 없게 된다. 각 교육공간과 공간의 사이는 모두 일종의 놀이터가 되어 사이공간의 활용이 경직되지 않고, 공간의 경계는 흐려지며 장소의 힘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헤르만 헬츠베르거의 공간이론과 유사함을 볼 수 있다. 대상지가 지니고 있는 단절성과 분리감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긍정적이었다. 단 그 구축의 기법은 여전히 다소 과도한 물리적 장치처럼 보여 매스와 매스 사이의 공간감이 주는 스케일감에서 따듯한 휴먼 스케일과 친근감의 적용이 적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매우 충실한 표현력과 다이어그램으로 세련되고 설득력있는 표현력이 훌륭하다고 평가되었다. 우수상에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작품이다.

**우수상 3.**

세 번째 우수상은 “함께 자라는 학교”였다. 대상을 초등 학교로 적용한 것은 그 연령대가 발달상 가장 다양하면서도 급격한 변화의 시기로 보았기 때문이다. 즉 현재의 교육공간을 분석해 보면 지금의 획일적인 단조로운 교육공간은 이런 연령대의 변화와 다양성에 매우 불충분하고 수정되어야 하 대상으로 본 것이다. 더구나 초등학교의 위치는 마을의 중심에서 커뮤니티의 중심으로 위치상의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양해야할 지역주민들의 쉼터와 공원 등을 고려하여야하고 단순한 쉼터를 넘어서 지역민의 재교육장소이자 화합의 장소로 변화되어야 하는 교육공간의 탐색이 제시되고 있다.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의 변화에서 출발한 성장하는 학교는 지역사회에서의 자라나는 교육시설의 성장을 동시에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대상지의 특성을 이용하여 선큰 공간등을 적극 활용하고 인근 공원과의 연계성을 활용하며, 교실군의 운영에서도 저학년으로부터 고학년의 배치를 고려하여 저학년에서는 가변성을 일반 복도공간의 활용과 연계하여 특별교실을 운영하지 않아도 가능한 공간제시와 중학년에서는 알코브 놀이공간을 넓은 복도공간과 연결하여 외부까지 개방되어 시선상의 장점을 활용하였으며 단

절되지 않는 공간은 그룹과 개인으로 운영되는 놀이형태도 고려하였다. 고학년에서는 프로젝트 룸과 외부 데크 활용을 적극 검토하여 그 연령대에 적합한 공간을 제시하였다. 이 작품은 학생으로의 아이디어를 넘어서 실무적인 감각을 겸비하고 있어, 실과 동선의 관계는 물론 구축적인 건설의 논리를 충실히 적용하여 매우 실제 적용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작업이다. 단면도와 투시도 작업에서도 구조와 공간의 활용 측면에서 모두 매우 충실하고 다이어그램에서도 현실적인 공간의 구조와 흐름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다. 기존의 역사문화관에 대한 배려와 각 학년 마다의 마당을 두는 것, 그리고 근린공원과 옥상 생태공원의 적용에서도 놓치지 않고 있다. 금년도의 주제에 맞는 우수상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지니고 있었다.